

도서관인의
窓 (1)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을 읽고

글: 김민성*



1. 들어가며

왜 성균관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는 인문학부에는 소속되어 있을까? '인문학부에 문헌정보학과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새내기 시절부터 나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기론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인데, 어찌 도서관과 같은 현실적인 '공간'과 '인간' 사이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문헌정보학과가 인문학부에 속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알기론 문헌정보학이란 '인간의 연구 성과물과 관련된 문헌을 저장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인 도서관에 대한 연구와 사서와 정보전문가 같은 '전문직'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문분야'인데, 어찌 실용성 측면이 강한 '사회과학부'에 문헌정보학과가 속해 있지 않은가. 문헌정보학과가 인문학부에 속해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을 읽기 며칠 전까지 계속되었다.

간단하게 말해 나는 문헌정보학을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 검색'과 관리 '기술'을 익히는 학문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의 전공 길잡이 책자에 실린 문헌정보학 관련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나의 착각을 부추겼다. 사실 학문적인 매력보다는 여하튼 '전문가'로 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택한 학과였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이. 에이치. 세라가 쓴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은 앞의 상황처럼 지방 학과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기에 읽은 책이다. 한자 공부를 따로 하기 싫어 서지학 관련 강의를 기피하던 내게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책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특히 1970년에 출판했다는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ccampos@hanmail.net

사실은 나에게 더욱 큰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문헌정보학의 기술적 측면이 문헌정보학의 전부라 착각한 내게 1970년대 책이 도대체 나에게 '현실적인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수많은 정보원들, 이 모든 것을 시대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의 기술적인 관리 차원이 발전하는 것 뿐인데 이 기술적인 측면을 문헌정보학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게끔 해주었다. 이 책은 문헌정보학의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문헌정보학의 출발선 앞에 다시 서도록 도와주었다. 앞으로 논의될 사항은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의 내용과 그 내용을 기점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문헌정보학의 모습, 그리고 문헌정보학에 대한 나의 '새로운' 관점과 판단이라 할 수 있다.

2.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과 그 발전에 대하여

(1) 사서와 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도서관을 그 안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는 문헌의 보관과 그 문헌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측면만을 주요 임무로 삼는 공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들이 위의 가정을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관에 저장, 관리 중인 문헌의 '대여'에만 집중한다. 그들의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위해 도서관의 문헌을 빌리거나 이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사서와 도서관의 역

할을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정보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책 정리' 내지는 '책 빌려주기'까지만 사고하는 일반인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사서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흔히 목격되는 사서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사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서는 앞으로 계속 언급할 것이지만 '전문직'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고 사서들이 일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또한 '전문적'인 공간이다. 즉 도서관은 문헌들의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다. 도서관에 저장되고 앞으로 계속 저장될 무한한 문헌 속의 정보를 제대로 조직하고 '적시적소'에 사용할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사서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자 그 업무의 공간이 도서관인 것이다.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이란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말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정의를 문헌정보학의 가장 저변에서, 가장 밑바탕에서 철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인 내용이란 문헌정보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을 뜻한다. 또한 사서와 도서관을 '사회봉사의 책임을 가진' 존재이자 기관으로 보고 있기에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한 당위적인 차원에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문헌이란 인쇄된 책은 물론 CD-ROM 등 다양한 뉴미디어 정보 매체까지 포함한다. 문헌은 우리가 갖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중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무엇인가 놓쳐 버리는 수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보 교환 방식은 문헌을 통한 정보 교환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환 방식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을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식의 저변에는 위와 같은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산소의 절실함을 높은 고도의 산에 올라가서야 깨닫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기란 쉽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는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사서가 어떻게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이 깊다.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두뇌작용'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해는 곧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도서관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결국 도서관 이용자를 상대하는 사서의 본연적인 역할을 사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독서로 인하여 지식과 인간의 행동과의 관계,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서에 의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사항이자 아직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하지만 독서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시에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접근과 '정보처리 능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됨으로써 도서관을 자율적인 정보의 판단아래 이용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의 도서관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없이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쏟아지는 무한한 정보 중 진정으로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의 출판사와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도움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도서관의 실제적인 주인인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도서관이다. 때문에 '독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서의 시급한 과제이다.

(2)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사회 속의 개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그 구조와 조직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 걸쳐 '지식의 끝없는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서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의 역할과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역할, 두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인식론'이라 부른다. 즉 사회인식론이란 사회 전체가 그것을 둘러싼 전 환경에 대해 인식 관계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사회인식론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사회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 방법'이라는 요약된 사회인식론의 정의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와 그 사회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이란 한 사회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 혹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식관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라보는 측면의 광범위함이 아

나라 시시각각 일 분 일 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지식과 인식관계를 연구해야 함이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처럼 정보의 제공은 무한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보가 늘어나 '정보의 불확실성'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인식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서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사서와 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언급한 '디지털 도서관'의 올바른 구축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한 사서에게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역할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이 요구된다. 사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 법률가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전문가들도 사서의 업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문헌정보학 관련 소양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문헌의 종류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 컴퓨터 전문가와 일반 사서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간격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사회 속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인식'과 '정보소양'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소양'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특히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정보소양' 보다는 일반 사용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보소양'의 내용과 그 배경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에서는 4장인 '변화와 추이', 5장 '사서의 교육'에서 시대에 발맞

추기 위한 사서와 도서관의 대응자세를 자세히 다루었다. 둘 다 사회 속의 구성 기관인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도서관을 이끄는 사서의 기본 소양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시대적인 변화와 오늘날 도서관과 사서가 직면한 세계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변화에서도 도서관과 사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한편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철학적인 바탕(위의 단락에서 말한 '정보소양'도 여기에 포함된다)을 성실히 다지는 자세이다.

인쇄매체와 비교해 볼 때 이용이 편리하고 정보 검색이 효율적인 정보원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인쇄매체의 판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구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고등 교육의 장'인 대학의 심장부는 여전히 대학교 도서관이며 많은 대학생들이 예전과 변함없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문헌으로 학습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사서가 시대의 차원을 넘어선, 사서만의 전문적인 교양을 갖추었을 때 도서관의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질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개선도 이루어 질 수 있다.

(3) 도서관 구성원의 변화

책의 '변화와 추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구성원의 핵심인 사서들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책에는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의 변화 속에서 갖추어야 할 직업마다의 적절한 대응 자세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서가 갖추어야 할 대응 자세를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

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그 구성원 역할의 변화를 '전문가'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부를 때 그 구체적인 의미란 '지적인 지식의 실체, 기본원리의 중핵을 지녀야 하며, 그리고 동시에 실무라는 구체적 현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란 단어에는 위의 뜻 이외에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즉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의 1장인 '도서관과 개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전문직이란 예를 들어 변호사와 판사가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고 높은 목적의식과 헌신감을 갖고 행해지는 봉사'를 뜻한다. 때문에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그 요구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방식과 소양을 갖추는 사서의 역할을 '전문직'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사서를 크게 셋으로 분류한다. 도서관장, 증견사서, 신입사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장이란 오래전부터 사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도서관의 총체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도서관과 새로운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구축이 요구되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사서의 대응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도서관에 익숙해진 보수적인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이용자들은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견사서는 증견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로써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도서관의 서

비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사서들이 디지털 도서관의 확충과 관련하여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철학적인 바탕'을 우선으로 두지 않은 채 디지털 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견사서 뿐만 아니라 신입사서들의 교육도 기술적인 차원에만 중점을 둔 채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전문가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사서에게 우선시 하는 것은 도서관의 질적인 바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사서는 사서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통찰을 바탕으로 보다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문헌정보학의 고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사서 본연의 임무와 그 임무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관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서가 전문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 "Proposal for a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stem"이란 제목으로 제출된 캘리포니아 대학의 보고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서들의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도서관 학교'의 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과거의 관료적인 형태인 기존 도서관 학교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서관 학교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석사학위를 위한 이 프로그램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과학, 인지과학, 심리 및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법률, 문헌정보학 및 커뮤니케이션"이 주요연구영역이다. 즉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로서의 '문헌정보학'과 컴퓨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학문 분야의 자질 또한 도

서관 운영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앞 단락에서 말한 문헌정보학의 철학적인 바탕을 기초로 전반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 또한 사서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소양이 기본적인 소양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올바른 도서관 구축에 힘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 일반인들의 정보소양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 즉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앞서서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하여 우수한 정보를 입수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행자의 생존과 직결 되어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정보의 패러독스' 문제로 인하여 올바른 정보 소양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정보의 패러독스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보로 제공됨에 따라 오히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위와 같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 배양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정보의 패러독스 말고도 정보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정보의 참조문제'가 대표적인데 이 문제 역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의 양이 늘어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보 소양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현 시대까지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소양은 접근이 해결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보 접근에 사용되는 비용과 이용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등한 접근'이란 공허한 것이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접근의 균등'이 아닌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기회의 균등'이 되어야 정보 소양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사서와 일반인의 만남 속에서 사서는 정확하고도 자율적인 정보 검색 방법을 익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일반인들의 정보 소양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마치며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이란 책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문해 보고자 한다.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출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헌정보학의 철학적인 기반'이다. 그 기반 위에서 사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만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양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자 그 중추인 도서관의 일원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만이 만들어 가는 공간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 소양 함양을 갖춘다면 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용자 모두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